

# 배타적 공간과 포용적 장소의 교차: 북평오일장에서 발견하는 경계의 해체와 사회적 포용성

강원도와 영춘맷기 보고서

202410836 김도하

## 목차

-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및 조사 방법
- 연구 대상지 개요: 동해시의 지역적 특성
  - 지리적 위치와 자연환경
  - 인구 현황 및 사회, 경제적 특징
  - 역사적 형성 과정
- 바다를 마주하는 두 가지 시선: 산업과 생활
  - 국가 무역항 동해항
  - 전통 어항 묵호항
  - 두 항구의 대비
- 수평과 수직의 자연 지형: 생태와 관광 문화
  - 수평의 공간, 바다
  - 수직의 공간, 산
  - 공간적 대비가 주는 문화적 경험
- 전통과 현대의 교차로: 북평오일장
  - 지역 사회에서 전통 시장의 인류학적 의미
  - 북평장의 역사성과 공간적 특징
  - 융합의 장
- 결론 및 제안점
  - 단절된 산업 공간과 포용적 관계의 장이 교차하는 도시
  - 지역 재생을 위한 제안: 관계 지향적 공간의 확장과 반주민 문화 형성
- 느낀 점
- 참고 문헌

##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강원도 동해시는 대한민국 동해안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이자 관광지이다. 나에게 동해시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나 관광 명소가 아니다. 친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거주하고 계시는 곳으로, 어린 시절부터 여름과 겨울 방학마다 동생과 함께 긴 시간을 보내며 성장해 온 제2의 고향이자 삶의 공간이다. 방학을 맞아 방문하던 동해시는 바다의 잔내와 활기찬 시장의 풍경, 그리고 푸르른 산의 정취가 공존하는 곳으로 나에게 기억된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고 다양한 학문적 시각을 접하면서, 개인적인 기억 속에 존재하던 동해시를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동해시는 겉보기엔 해안 도시 같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매우 상반된 성격의 공간들이 공존하고 교차하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거대한 물류가 오가는 국가관리 무역항인 동해항과 지역민의 치열한 어업 현장인 묵호항이 인접해 있고, 탁 트인 수평적 개방감을 주는 바다(망상 해수욕장, 추암 촛대바위 등)와 수직적이고 고즈넉한 산(두타산, 무릉계곡, 천곡동굴)이 도시의 양축을 이룬다. 또한 전국 3대 오일장으로 꼽히는 북평오일장은 전통적인 교류의 장으로서 현대적인 관광 문화 속에서도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동해시가 지닌 이러한 공간의 이중성과 융합에 주목하여 산업과 생활, 자연의 수평과 수직, 전통과 현대라는 상반된 요소들이 어떻게 동해시만의 고유한 지역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하는지 분석하는 데 있다. 나아가 분절된 공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창출될 수 있는 문화적 잠재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1-2. 연구 및 조사 방법

본 연구는 동해시의 공간적 특징과 문화적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문헌 조사와 현지 조사, 그리고 연구자의 경험을 결합한 혼합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첫째, 객관적 데이터와 이론적 틀을 확보하기 위해 문헌 조사를 실시한다. 동해시의 지리적, 경제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통계 자료와 각종 간행물을 참고하며 공간과 장소성, 전통 시장의 기능 등에 관한 논문과 문헌을 분석한다.

둘째,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과 기억을 학술적 맥락으로 연결하는 자기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어릴 적부터 동해시를 방문하며 체득한 내부자적 시선을 통해, 단순한 통계 수치나 외부인의 시선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지역의 고유한 분위기와 일상적 문화를 기술할 것이다.

셋째, 학기 중 직접 동해시 현지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조부모님 댁을 방문하여 묵호항, 북평오일장, 주요 관광지 등 본론에서 다룰 핵심 공간을 다시 둘러보며 변화된 장소성을 관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문헌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공간과 환경 속에서 지역 주민 및 방문객들의 상호작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보다 입체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 2. 연구 대상지 개요: 동해시의 지역적 특성

### 2-1. 지리적 위치와 자연환경

강원도 영동 남부 지역에 위치한 동해시는 동쪽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동해바다와 맞닿아 있고, 서쪽으로는 웅장한 태백산맥이 병풍처럼 늘어선 독특한 지리적 환경을 지니고 있다. 북쪽으로는 강릉시 옥계면, 서쪽으로는 정선군 임계면, 남쪽으로는 삼척시 교동과 경계를 접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동해시 특유의 수평과 수직의 공간적 이중성을 탄생시킨 근본적인 배경이다. 서부 산간 지대에는 해발 1,353m의 두타산과 1,404m의 청옥산이 솟아 있어 무릉계곡과 삼화사 등 산과 계곡 중심의 수직적이고 고즈넉한 문화 경관을 형성한다. 반면, 동부 해안 지대는 약 43km에 달하는 해안선을 따라 망상, 추암 등 넓은 백사장과 기암괴석이 발달하여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해양 관광 문화를 발달시켰다. 즉, 동해시는 산과 바다라는 상반된 자연환경이 한 행정구역 안에 압축적으로 공존하는 지형적 특성을 띠고 있다.

### 2-2. 인구 현황 및 사회, 경제적 특징

동해시의 인구는 2026년 3월 기준 85,875명으로, 강원도 내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다. 그러나 경제 및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여타 농어촌 지역과는 확연히 다른 역동성을 지닌다.

동해시의 경제 구조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째는 국가 물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다. 동해항은 강원도 유일의 국가관리 무역항이자 환동해권 물류의 거점으로, 시멘트와 석탄 등 막대한 양의 벌크 화물이 수출입되는 중화학 공업과 해운 물류 산업의 심장부이다. 둘째는 지역민의 생업 현장으로서의 수산업과 관광업이다. 묵호항을 중심으로 한 연안 어업은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탱해 온 뿌리이며, 최근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해양 관광 산업이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거대한 국가 자본이 움직이는 동해항과, 지역민의 소박한 일상과 상업이 이루어지는 묵호항 및 북평오일장이 한 도시 안에서 맞물려 돌아가는 이러한 사회, 경제적 이중성은 동해시의 문화를 매우 다층적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 2-3. 역사적 형성 과정

동해시의 공간적, 문화적 이중성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도시의 형성 역사이다. 동해시는 오랜 옛날부터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어져 온 전통적인 도시가 아니다. 1980년, 명주군(현 강릉시)에 속해 있던 묵호읍과 삼척군에 속해 있던 북평읍이 병합되면서 인위적으로 신설된 행정구역이다.

묵호읍은 과거 일제강점기부터 무연탄을 실어 나르기 위해 개발된 항구 도시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선원과 노동자들로 하여금 어촌 및 항구 문화를 형성했다. 반면, 북평읍은 넓은 평야를 끼고 있어 농경 문화가 발달했으며, 전국구 규모의 북평오일장을 중심으로 상업과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곳이다.

즉, 동해시는 태생적으로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뿌리가 달랐던 두 지역(묵호와

북평)이 하나로 결합된 융합의 도시인 것이다. 오늘날 북쪽의 묵호항 일대와 남쪽의 동해항, 북평장 일대가 서로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형성 과정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동해시의 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곧, 서로 다른 기원과 역사를 가진 두 공간이 지난 40여년 간 어떻게 갈등하고 융합하며 지금의 동해시라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냈는지를 추적하는 과정이다.

### 3. 바다를 마주하는 두 가지 시선: 산업과 생활

동해시의 바다는 단일한 얼굴을 하고 있지 않다. 같은 동해바다를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의 목적과 주체에 따라 바다를 대하는 방식과 형성된 문화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두 공간이 바로 국가 물류의 심장인 동해항과 지역민의 생업 터전인 묵호항이다.

#### 3-1. 국가 무역항 동해항

동해항은 강원 지역의 유일한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역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곳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이나 휴식을 위한 바다라기보다, 산업과 경제를 위해 설 새 없이 움직이는 일터로서의 바다에 가깝다. 주로 시멘트나 석탄 같은 대규모 화물을 다루기 때문에, 항구 주변을 지나다 보면 거대한 저장 시설과 시멘트 공장들이 크게 자리 잡고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동해항은 일반적인 해수욕장이나 어항과 달리, 국가 주요 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그래서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들이 쉽게 다가가기 어렵고, 일상적인 생활 공간과는 확실히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준다. 실제로 이 부근을 차를 타고 지나다 보면 거대한 화물선과 대형트럭, 그리고 기계소리가 가득한 공장지대라는 인식을 받곤 한다. 이처럼 동해항은 사람들이 문화를 즐기고 교류하는 장소라기보다는, 수많은 물자가 오가며 경제를 뒷받침하는 거대한 산업 시설로서의 역할에 집중된 공간이다.

#### 3-2. 전통 어항 묵호항

반면 동해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묵호항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띠는 곳이다. 묵호항 역시 과거에는 석탄과 시멘트를 나르던 항구였지만, 점차 오징어와 명태를 잡는 어선들이 드나들면서 어업이 중심이 된 전통 어항으로 자리잡았다. 동해항이 일반인은 다가가기 힘든 국가 산업 시설이라면, 묵호항은 어민들과 상인,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치열한 삶과 일상이 그대로 녹아있는 생활 속의 바다라고 할 수 있다.

방학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방문할 때면, 묵호항 일대는 늘 째짤한 바닷바람과 생선 비린내, 그리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로 가득했던 기억이 난다. 아침 일찍 수산시장에 가면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묵호항 뒤편의 오래된 산동네가 논골담길이라는 벽화 마을로 예쁘게 꾸며지고, 묵호 등대 일대가 관광지로 유명해졌다. 그 덕분에 묵호항은 단순히 어업만을 위한 곳을 넘어, 지역 주민들과 외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활력을 나누는 문화적인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 3-3. 두 항구의 대비

동해항과 묵호항은 물리적으로는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두 곳이 보여주는 바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 동해항이 크고 무거운 화물이 오가는 닫힌 산업 공간이라면, 묵호항은 사람들의 생활과 정이 직접적으로 오고 가는 열린 생활 공간이다.

이러한 두 항구의 뚜렷한 차이는 동해시가 가진 독특한 매력을 잘 보여준다. 항구 도시라고 하면 흔히 수산시장만 떠올리기 쉽지만, 동해시는 지역 경제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동해항의 웅장함과 사람 냄새가 나는 묵호항의 따뜻한 풍경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처럼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이 한 도시 안에 공존한다는 점이 동해시를 더욱 입체적이고 흥미로운 곳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한다.

## 4. 수평과 수직의 자연 지형: 생태와 관광 문화

동해시가 가진 또 다른 큰 매력은 바다와 산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함께 있다는 점이다. 보통 관광지라고 하면 바다면 바다, 산이면 산, 어느 한쪽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동해시는 넓게 펼쳐진 수평적인 바다와 웅장하게 솟은 수직적인 산이 맞닿아 있어,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두 가지 자연환경을 동시에 경험하게 해준다.

### 4-1. 수평의 공간, 바다

동해시의 동쪽을 따라 길게 이어진 바다는 시각적으로 탁 트인 개방감을 주는 수평의 공간이다. 대표적인 관광지인 망상해수욕장은 끝없이 펼쳐진 넓은 백사장과 시원한 파도 덕분에 여름철이면 수많은 피서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또한, 해돋이 명소로 잘 알려진 추암 촛대바위 일대는 바다 위로 솟아오른 기암괴석이 파도와 어우러져 매우 역동적인 풍경을 만들어낸다.

어릴 적 여름방학마다 동생과 함께 바닷가에 가서 물놀이를 하거나 모래사장을 뛰어놀았던 기억이 많다. 이처럼 동해시의 바다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이끌어내고, 활기찬 여가 활동과 해양 레저를 즐기게 만드는 외향적이고 동적인 관광 문화를 형성해내고 있다. 답답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해방감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에게 바다는 완벽한 휴식처가 되어준다.

### 4-2. 수직의 공간, 산

반면, 동해시의 서쪽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산간 지역은 차분하고 내향적인 수직의 공간이다. 두타산과 그 아래 자리 잡은 무릉계곡은 바다와는 전혀 다른 숲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거대한 절벽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는 무릉계곡을 걷다 보면, 시끌벅적한 해변과는 대비되는 조용하며 또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깊은 산속에 자리한 삼화사 같은 사찰은 방문객들이 일상에서의 복잡한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정신적 수양의 공간을 제공한다.

여기에 동해시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천곡동굴 역시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수직적인 자연 탐험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바다가 신나게 에너지를 발산하는 공간이라면, 산과 계곡 그리고 동굴은 시원한 그늘이나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자연을

감상하고 마음을 다독여주는 정적인 힐링의 공간이다.

#### 4-3. 공간적 대비가 주는 문화적 경험

이처럼 바다의 개방성과 산의 아늑함은 서로 뚜렷하게 대비되지만, 동해시 안에서는 이 두 공간이 불과 차로 20~30분 거리에 옹기종기 모여있다. 이러한 독특한 지리적 특성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문화적 경험을 선사한다.

오전에는 무릉계곡의 물길을 따라 걸어 오르며 두타산의 정기를 느끼고, 오후에는 망상해수욕장으로 넘어가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활기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정적인 휴식과 동적인 즐거움을 하루 안에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점은 동해시만이 가진 강력한 장점이다. 결국 동해시의 관광 문화는 바다나 산 어느 하나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이 상반된 두 자연환경이 주는 다채로운 경험이 섞이면서 훨씬 풍성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 5. 전통과 현대의 교차로: 북평오일장

동해시를 상징하는 바다와 산이 자연이 만들어낸 공간이라면,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낸 가장 역동적인 문화 공간은 당연히 북평오일장이다. 매월 끝자리가 3일, 8일인 날마다 열리는 북평장은 동해시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현대적인 항구 도시 속에서 옛 전통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다.

#### 5-1. 지역 사회에서 전통 시장의 인류학적 의미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전통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경제적인 공간에 그치지 않는다. 대형마트가 정해진 가격에 규격화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의 공간이라면 전통 시장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 부딪히며 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관계의 광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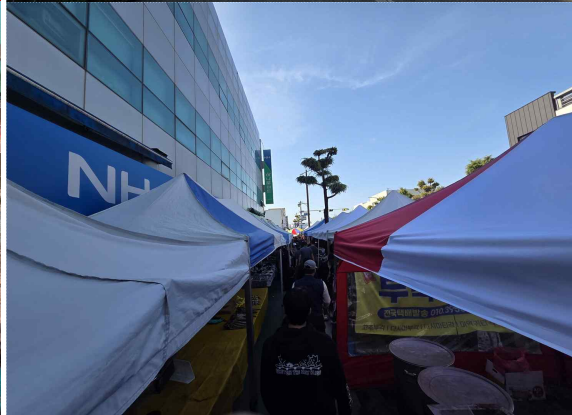
시장에 나온 상인들과 손님들은 물건값을 흥정하며 안부를 묻고, 지역 사회의 소문과 정보들이 이 장터를 중심으로 널리 퍼져나간다. 이처럼 전통 시장은 지역 주민들이 모여 유대감을 형성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해 주는 아주 중요한 문화적 거점이다. 특히 북평오일장은 동해시 주민들에게 그저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이웃들과의 삶을 공유해온 커다란 만남의 장소로서 기능한다.

#### 5-2. 북평장의 역사성과 공간적 특징

전국 3대 오일장 중 하나로 손꼽히는 북평오일장은 무려 2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과거 영동 지방의 농산물과 해산물이 모두 모여들던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규모가 매우 크고 상인들도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다. 장날이 되면 평소에는 조용하던 도로와 골목 전체가 거대한 시장통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공간적으로도 북평오일장은 품목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역이 나뉘어 있다. 해산물을 파는 어물전, 농산물을 파는 난전, 그리고 먹을거리를 파는 먹거리 장터까지 각 구역마다 풍기는 냄새와 분위기가 매우 다채롭다. 겨울에 북평오일장을 방문 할 때면, 끝없이 이어진 천막과 인산인해를 이루는 사람들 사이에서 호떡을 들고 돌아다니며 구경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렇듯 북평오일장은 그 규모와 분위기만으로도 방문객을

압도하는 장소성을 지니고 있다.



(직접 촬영한 동해시 북평오일장의 모습)

### 5-3. 융합의 장

최근 북평오일장은 단순히 지역 주민들만 이용하는 시장을 넘어서,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융합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과거에는 장을 보러 온 현지 주민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동해시를 찾는 다양한 연령대의 관광객들도 로컬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이곳을 필수 코스로 방문한다.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과 카메라를 들고 시장을 구경하는 관광객이 한 공간에 어우러지는 모습은 북평오일장만의 독특한 풍경이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풍경 속에 젊은 상인들이 운영하는 트렌디한 먹거리 트럭 등이 들어서면서, 옛것의 매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편리를 더해가는 중이다.

결국 북평오일장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공간이 아니다. 지역 주민의 삶이라는 바탕 위에 외부 방문객들의 새로운 에너지가 더해지며 전통과 현대, 원주민과 관광객이 가장 자연스럽게 융합하는 살아있는 문화의 교차로가 되고 있다.

## 6. 결론 및 제안점

### 6-1. 단절된 산업 공간과 포용적 관계의 장이 교차하는 도시

본 연구는 1980년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진 목호읍과 북평읍이 병합되어 탄생한 동해시가 오늘날 어떠한 이중성과 문화적 특성을 띠고 있는지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동해시는 겉보기에는 단일한 해안 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 내부에는 목적과 기능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이질적 공간들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국가 물류의 거점 역할을 하는 동해항은 거대한 자본과 물류가 오가는 핵심 산업 공간이지만,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에서 일상 및 문화 공간과는 철저히 분리된 단절의 성격을 띠고 있다. 반면 수평적인 바다와 수직적인 산이 인접한 자연환경은 방문객에게 역동적인 해방감과 정적인 힐링을 동시에 선사하며 다채로운 관광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적 단절과 자연의 개방성이 교차하는 동해시의 독특한 지형도는, 도시 남부에 위치한 북평오일장에 이르러 사람과 사람이 교류하는 역동적인 사회적 융합으로 만개한다. 무려 2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전국 3대 오일장 중 하나로 손꼽히는 북평오일장은, 단순히 정해진 가격에 물품을 교환하는 경제적 공간에 머물지 않는다. 이곳은 오랜 세월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이웃으로서의 삶을 공유해 온 관계의 광장이자, 로컬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찾아온 외부 관광객들이 한데 섞여 에너지를 주고 받는 융합의 장이다. 전통적인 풍경 속에 젊은 상인들의 트렌디한 먹거리가 스며들어, 원주민과 낯선 이방인의 경계가 부드럽게 흐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북평오일장은 지역 사회가 외부인을 타자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일상 속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포용성과 느슨한 연대가 실천되고 있는 생생한 삶의 현장이다.

### 6-2. 지역 재생을 위한 제안: 관계 지향적 공간의 확장과 반주민 문화 형성

북평오일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포용적 장소성은 현재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지방 도시의 보편적 위기를 겪고 있는 동해시에게, 향후 지속 가능한 지역 재생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단순한 시각적 감상이나 일회성 소비에 그치는 관광을 넘어, 외부인들이 지역 사회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 훌륭한 모델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동해시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실천적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원주민의 일상과 외부인의 문화적 에너지가 섞일 수 있는 관계 지향적 융합 공간을 도시 곳곳으로 확장해야 한다. 묵호항 배후의 오래된 산동네가 벽화 마을인 논골담길로 변화하며 관광객과 주민의 삶이 교차하게 된 사례처럼, 일상적 공간에 새로운 활력이 개입할 수 있는 여백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규모 개발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의 옛 골목이나 유휴 공간, 소규모 상점 등을 활용하여 방문객들이 동해시만의 고유한 로컬 커뮤니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접점들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둘째, 훌륭한 자연경관을 활용하되, 동해시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반주민 및 워케이션 인구 유입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바다의 개방감과 산의 아늑함을 업무와 휴식이 결합된 워케이션 환경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이들이 묵호항 수산시장이나 북평오일장 같은 로컬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역 상인과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이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을 통해, 이방인들이 동해시를 단순히 휴가지가 아닌 삶의 일부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태생부터 서로 다른 역사와 성격을 지닌 공간들의 결합으로 시작된 강원도 동해시는 이질적인 것들을 매력적으로 품어내는 북평오일장의 포용력을 도시 전체의 정체성으로 확장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역 재생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과 생활, 일상과 관광, 원주민과 이방인이 경계 없이 교류하며 만들어내는 끈끈하면서도 느슨한 연대야말로, 동해시가 미래의 새로운 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 7. 느낀 점

이번 영춘맷기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나에게 단순한 과제를 넘어, 익숙했던 개인적인 공간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재구성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럴 적부터 조부모님 댁을 오가며 나에게 동해시는 그저 편안한 휴식처이자 방학의 즐거움으로 가득 찬 공간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도시를 구조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풍경들 속에 산업과 생활, 원주민과 이방인, 단절과 융합이라는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북평오일장에서 발견한 지역 사회의 역동성이었다.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오일장을 분석하며, 이곳이 단순히 경제적 교환이 일어나는 물리적인 장소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강력한 관계의 장임을 실감했다. 낮은

방문객마저도 자연스럽게 포용하는 시장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모습 속에서, 다름을 배척하지 않고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진정한 의미의 환대를 엿볼 수 있었다. 이는 현대 도시가 점차 잃어버리고 있는 공동체의 온기이자, 인구 감소라는 위기 속에서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핵심적인 가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아가 이러한 고민은 동해시의 미래와 지역 재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이어졌다. 단순히 관광 명소를 개발하고 일회성 방문객을 늘리는 양적인 팽창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 대신, 동해시가 가진 훌륭한 자연환경과 북평오일장의 포용적인 장소성을 결합하여 워케이션 등을 통하여 지역에 머무는 반주민들을 유입하고 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절실히 느꼈다. 낯선 이방인이 지역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때, 공간은 비로소 지속 가능한 생명력을 얻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는 나의 제2의 고향인 강원도 동해시를 완전히 새로운 지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탈바꿈시켜주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공간의 상호작용을 읽어내는 일은 매우 흥미롭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는 물리적인 환경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간의 경험들을 더욱 섬세하고 자세히 관찰하고, 타자를 향한 포용력을 지닌 공간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것이다.

## 8. 참고문헌

동해시 홈페이지 (<https://www.dh.go.kr/www/index.do>)

북평민속5일장 (<https://www.dh.go.kr/www/contents.do?key=767>)

나무위키\_동해시 (<https://namu.wiki/w/%EB%8F%99%ED%95%B4%EC%8B%9C>)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kspak56/2242632574130>)

(<https://blog.naver.com/sk57533/224275132589>)

(<https://blog.naver.com/viewsign/223687398596>)

(<https://blog.naver.com/jyleen/224175065387>)